

디자인 주도 혁신을 외치다: 디자인코리아

2003

디자인진흥원사

- 제11대 김철호 원장 취임
- 글로벌디자인어 육성 프로그램 실시
- 한국전통이미지DB 웹사이트 오픈
- 제1회 《국가상징디자인 공모전》 개최
- 제1회 디자인코리아 개최
- 산자부 일류상품디자인 지원단 출범
- 제3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2003~2007) 수립
-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 전략 발표

한국 디자인사

- 현대카드 M 출시
- 「뽀롱뽀롱 뽀로로」 방영 시작

한국 사회사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출범
- 태풍 매미 한국 강타
- 드라마 「대장금」 방영
- 「실미도」 개봉(국내 최초 천만 관객)
- 한해 반도체 수출 200억 달러 돌파
- 청계천 복원 논란

‘디자인코리아’는 1999년 처음 열린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의 슬로건으로 처음 등장했다. 21세기 디자인 강국을 지향하며 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 올려 한국을 다시 디자인하고, 21세기 디자인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디자인 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대회의 목적이었다. 국내 디자인 공식 행사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행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제1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을 시상하고 디자인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와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신감과, 이로 인해 조성된 세계 디자인계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자원부와 KIDP는 2003년 12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산업 박람회인 제1회 디자인코리아를 개최했다. 1994년과 1996년 《서울 국제 산업디자인 교류전》, 《세계 우수산업 디자인박람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던 국제 교류전을 발전시켜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과 세계 디자인을 비교·전시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한국 디자인이 활약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장이었다. 2003년 《서울 세계 베스트 디자인전》으로 시작된 이 박람회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 전시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산업계에 좋은 자극을 주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기업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회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세계를 선보였다.

이후 디자인코리아는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산업디자인협회와 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로부터 국제 행사 인증을 받았다. 2009년 제7회까지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베이징(2004), 상하이(2006), 광저우(2008) 등 격년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열었지만, 2009년부터는 한국에서만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 디자인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회, 디자인 체험, 세미나,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 등이 이뤄진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500여 개 기업이 디자인 우수 상품 2,000여 개를 선보이며 디자인산업의 트렌드를 제시한다.

2018년부터 3개 년간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대주제 아래 ‘K-디자인 DNA’(2018), ‘디지털 대전환’(2019), ‘디자인, 데이터를 그리다(Design beyond data)’(2020년 예정)를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2018년부터는 잡페어를 처음 시도하여 업계와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2019년 제17회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화두를 던진 가운데, 165개의 기업 부스와 기업 50개사 디자이너 약 900명이 잡페어에 참여했다. 2019년부터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고 로고를 새롭게 구축하여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디자인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KIDP 50주년을 맞는 2020년에는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IDK FESTIVAL
DESIGN KOREA FESTIVAL
2

- 1 2019 DK 페스티벌 전경
- 2 DK페스티벌 로고(2019)